

소형시트 천공의 다양성

-1974년 쌀-

1974년 쌀의 특징

1974년도에 발행한 쌀[그림 1] “한옥과 트리”는 당시 체신부 소속의 우표 디자이너인 강박의 작품으로 한옥(韓屋)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현대적인 감각의 도안으로 형상화한 2종류의 쌀이다. 전지는 대형전지(10×10=100매용)와 소형전지(10×5=50매용)의 2종류가 있으며 별도로 쌀 소형시트(2×2매)를 발행하였다. 천공은 13½이며 평판 4도색으로 서울신문사에서 인쇄하였다. 액면은 10원으로, 당시 보통우편물(1종 필서봉서 기준)의 우편료 10원에 쌀 판매가를 맞춘 것을 알 수 있다.

쌀의 경우 우표와 달리 자료가 부족해 인쇄소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1974년 쌀의 경우는 [그림 1]과 같이 2코너에 도안자와 인쇄소의 명칭을 번지에 명기하고 있다.

과년도 쌀 중에는 입수가 어려운 몇 가지 품목이 있는데, 1974년도 쌀은 입수가 어려운 대표적인 품목으로 결핵협회(www.knta.or.kr)에서 운영하는 쌀 쇼핑몰을 통해서도 현재 구입할 수가 없으며 특히 전지의 구입은 시중에서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1950년대나 1960년대 쌀도 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1970년대의 일부 쌀을 결핵협회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연 때문이다.

1973년까지는 크리스마스 쌀 판매를 통한 결핵사업의 기금조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1974년부터 정부 당국의 쌀 모금방법 개선방침에 따라 쌀 모금 목표를 전년도 대비 반으로 줄이고 대신 결핵퇴치 기금 우표[그림 2]를 자선우표 형태로 발행하고(1974.11.1) 당시 우편요금 10원에 5원을 기금으로 추가하여 15월에 판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판매대금의 일부를 결핵사업 기금으로 조성하였다. <결핵협회 30년사>에 따르면 1973년 쌀 발행 대수는 약 4,200만매이나 1974년은 전년대비 42%인 1,745



그림 1 1974년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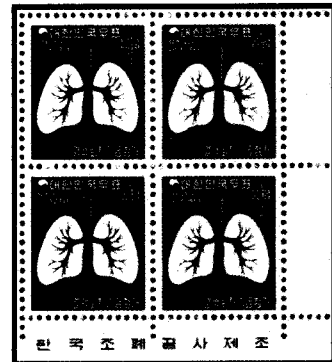


그림 2 우표_결핵퇴치기금



그림 3 2대 대통령 취임우표



그림 4 독도보통우표 (3종)



그림 5 강박의 자화상(초일봉피의 까세)

만매로 축소 발행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1979년까지 지속되어 1975년을 제외하고 1976~1979년의 싼은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입이 어렵게 되었다.

싼 도안자 강박은 누구인가 ?

강박(姜博)은 한국조폐공사 도안실 실장 출신으로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우표 디자이너이자 화폐 도안에도 많은 기여를 한 화폐 디자이너이다. 디자이너 강박의 대표작으로 기념우표는 1952년 발행한 제2대 대통령 취임우표 [그림 3]가 있으며 보통우표로는 1954년 발행한 독도 보통우표 [그림 4]가 있다. 강박은 이외에도 많은 기념우표 및 보통우표와 엽서(을지문덕 엽서)를 도안한 제1세대 우표 디자이너이다.

고바우 김성환(金星煥) 화백이 월간 <우표>지 2003년 5월호에 기고한 “추억의 우표 디자이너 육필 까세집”에 따르면 김성환 화백은 디자이너 강박이 도안한 우표를 첨부한 백봉(白封)의 초일봉피(初日封皮; F.D.C)를 만든 후 강박을 직접 만나서 봉피의 여백에 까세(Cachet)를 그려 받았는데 이 중에는 강박 자신의 자화상[그림 5]을 그린 봉피 그림이 게재되어 있다. [그림 5]의 자화상을 보면 좌측에는 강박의 한자 서명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영문 서명을 기재하고 있다. 까세에 있는 날자표기(1964.5.25)는 강박이 디자인한 1차관광시리즈 우표 발행일로서 김성환은 이에 대해 “해당 일자는 자신이 나중에 써 넣은 것으로 공연한 짓을 해서 좀 후회하였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강박은 싼도 여러 차례 디자인한 바 있다. 예를 들면 1950년(한국의 귀동자), 1960년(해와 달과 구름), 1961년(팔랑개비와 숲속의 새), 1978년(자연보호 시리즈-자생꽃) 싼 등이 그것이다.

1974년 썰과 소형시트

1974년 썰 도안은 2종류로 단순하며 1종은 한옥을 형상화하고 1종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형상화하였다. 전지의 경우 100매 전지와 50매 전지가 있으며 100매 전지는 변지의 천공이 ①상-좌발형(상변지와 좌변지가 끝까지 천공된 것)[그림 6]과 ②상하-좌발형(상변지 및 하변지와 좌변지가 끝까지 천공된 것)[그림 7]의 2종류가 있다.



그림 6 상-좌발형의 3코너



그림 7 상하-좌발형의 3코너

썰 발행시 별도로 소형시트를 발행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당시에는 1957년의 소형시트 발행 이후 1972년, 1973년, 1974년 연속 3회 소형시트를 발행하여 총 4회만 발행되었으며 1985년 이후는 10매의 소형전지 형태로 썰을 발행하였다. 발행된 4개 년도의 소형시트 입수는 매우 어려우며 특히 1974년 소형시트는 특히 입수가 어려운 품목이다.

소형시트 상변지에는 “내가 산 크리스마스·썰 결핵을 없앤다”라는 붉은색의 표어가 기재되어 있으며 하변지에는 영문으로 대한결핵협회 명칭(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이 인쇄되어 있다. 소형시트는 발행 자체도 매우 드물지만 1974년의 소형시트의 경우는 변지의 천공이 매우 다양하여 변지의 천공별로 소형시트를 모두 입수하는 것은 오랜 기간을 소요하여도 가능하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①하-우발형[그림 8] ②하-좌우발형[그림 9] ③상하-우발형[그림 10] ④상하-좌우발형[그림 11] ⑤상하-좌발형[그림 12]의 5종류가 발견되었다.



그림 8 하-우발형



그림 9 하-좌우발형



그림 10 상하-우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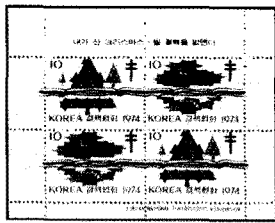


그림 11 상하-좌우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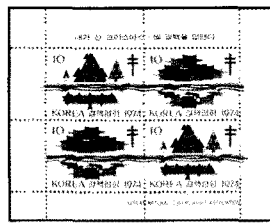


그림 12 상하-좌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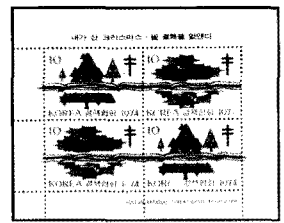


그림 14 하-좌발형 소형시트(예)

위 소형시트 5종과 미입수 품목 1장[그림14]을 인쇄전지 1장에 그대로 배치하면 [그림13]의 형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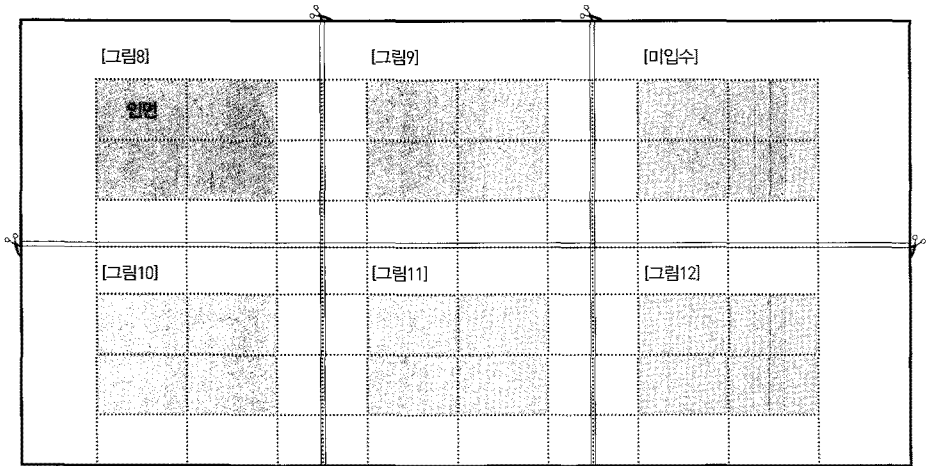


그림 13 소형시트의 인쇄전지 형태

『하-좌발형』 소형시트를 수배합니다.

위 [그림 13]을 보면 한 장의 인쇄전지에 6장의 소형시트를 인쇄하고 빗형천공(천공침을 빗살형태로 배치하여 천공한 것)을 한 후 각각 6장으로 재단하여 창구에서 판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그림 13]의 2코너 위치에 해당하는 [그림 14]의 하좌발형(下左抜形)의 소형시트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나 필자가 현재까지 입수하지 못하여 해당 시트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본 원고를 보시는 강호의 실 수집가 동호인께서는 [그림 13]과 같은 형태의 소형시트가 있을 경우 필자에게 꼭 제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을 쓴 남상욱 님은 실 수집가로 서초우취회 부회장 및 우리협회 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 한국의 크리스마스 쉼야화 19회 이상성 (보건세계)
- 대한결핵협회 30년사 (1983.12 대한결핵협회)
- 월간 우표지 [2003년 5월호]
- 한국우표 포털 서비스 (www.kstamp.go.kr)